동구, 겨울잠 끝낸 '5·18민주광장 음악분수' 기지개 켜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겨울철 재정비 기간을 마치고 4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중심이자 상징인 '5·18민주광장 음악분수'의 운영을 재개한다.

5·18민주광장 내 분수대는 1971년 신축돼 5·18광주민주화운동 중심지로서의 상징성을 인정받아 5·18 주요 사적지 중 하나로 지정된 바 있으나 30년 가까운 세월에 노후화돼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동구는 지난해 노후화된 분수대를 재정비하는 '5·18민주광장 음악분수 설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미디어아트 영상, 수중 포그레이저 쇼 등 다채로운 음악분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전당권 도심 관광의 활력을 불어넣은 바 있다.

5·18민주광장 음악분수는 3D 노즐, LED 조명, 4개의 빔 프로젝트, 레이저 등을 통해 다채로운 음악분수 연출이 가능하며, 특히 분수대 물줄기 속에서 나오는 화염은 음악분수 연출의 화려함을 더하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동절기 긴 휴식을 마치고 기지개를 켠 음악분수는 모든 세대의 관람객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운영을 위해 올해 31곡을 추가 제작하고 총 81곡의 다채로운 음악분수 연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5·18민주광장 음악분수는 ▲화~목요일(오후 7시 30분 1회) ▲금~일요일과 공휴일(낮 12시 30분, 7시 30분, 9시 30분 등 총 3회) 운영될 예정이다. 매주 월요일은 점검을 위해 운영을 중지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봄을 맞아 운영을 재개한 음악분수가 광주 시민의 일상 속 작은 힐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음악분수'와 짝을 이루며 시민들에게 행복을 선사해 온 '빛의 분수' 역시, 5일부터 매일 오후 8시 15분에 운영되며, 음악 분수와 마찬가지로 월요일은 운영되지 않는다.

/이유빈 기자

남구,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우수기관'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정부 주관 '2023~2024년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남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보호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추진한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실적과 지역별 위기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발굴사업 실적, 민·관 협력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여도까지 4개 지표를 반영했다.

남구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특화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우수기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고독사 예방 방지를 위한 자체 사업인 3-24H 안부 시스템과 오갈 곳이 마땅치 않은 주거 위기자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는 으뜸효 남구 안심돌봄 주택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3-24H 안부 시스템은 관내 17개 동에서 취약계층 가구와 결연을 맺은 주민 577명이 3시간 이내에 전화 또는 가정방문으로 취약계층 주민의 안부를 확인한 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응급조치까지 마무리하는 특별 관리 시스템이다.

남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 안부 파악에 나섰으며, 다행히 긴급 도움을 필요로 한 주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으뜸효 남구 안심돌봄 주택은 화재와 수해 등의 사유로 임시 거처가 필요한 주민의 주거 공백을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 2023년 12월부터 백운동 등 관내 5곳에서 돌봄주택 9가구를 운영하고 있다.

/정희태 기자

광산구, ㈜GS리테일과 노인 일자리 활성화 협약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GS리테일, 광산시니어클럽과 노인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GS리테일의 '시니어동행편의점' 사업을 통해 지역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해서 제공하는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와 관련, ㈜GS리테일은 올해 초 광산구 우산동에 광주 1호 '시니어동행편의점'을 열었다. 현재 12명의 어르신이 선발돼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광산구와 광산시니어클럽은 '시니어동행편의점'을 중심으로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우수 인력 모집, 사업 홍보 등을 돕기로 했다.

㈜GS리테일은 '시니어동행편의점' 사업을 위한 점포 배정 적극 협력, 편의점 이미지 개선 및 환경 조성, 가맹비 제외, 전대 보증금 등을 약속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산구 '시니어동행편의점'이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다양한 기업,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최근 서구청직장어린이집 원아들과 함께 꽃을 심는 '나는야 환경지킴이'행사를 개최했다. 서구는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가 살아갈 지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며 직접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 /서구청 제공

서구, '환경지킴이' 어린이 꽃 심기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최근 서구청직장어린이집 원아들과 함께 꽃을 심는 '나는야 환경지킴이' 행사를 개최했다.

서구는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가 살아갈 지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며 직접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

이날 원아들은 어린이집 일원에 수국 5주, 샤스타데이지 등 6종 360본을 심고 재활용 페트병을 집에서 가져와 상추, 쪽파, 깻잎 등 4종의 친환경 작물들을 심었다.

이들은 앞으로 직접 심은 식물들을 가꾸고 재배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박채영 아동청소년과장은 "미래 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ESG 가치를 반영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올해는 미래 세대가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상 속 탄소중립의 실천 방법을 공유하고, 에너지, 환경, 기후 관련 실천 프로그램 교육 및 환경 캠페인을 진행하는'넷제로실천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북구,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 개최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제2회 도서관의 날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5개(중흥·일곡·운암·양산·신용) 구립도서관에서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서관의 날은 매년 4월 12일로 도서관에 대한 주민 이해와 관심을 높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며 이를 축하하고자 도서관의 날로부터 일주일간이 도서관주간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에 북구 5개 구립도서관은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주간을 주민과 함께 기념하고자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 주제로 ▲강연 5개 ▲체험 12개 ▲전시 10개 ▲기타 13개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마련했다.

중흥도서관에서는 '신민재 작가와의 만남', '우리는 책과 함께하는 가족' 등 10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일곡도서관에서는 '한얼 작가와의 만남', '나만의 북커버 만들기' 등 7개 프로그램이 주민들에게 제공된다. 운암도서관은 '이송희 교수 인문학 특강(예술가의 연인들 사랑과 욕망을 그리다)', '아로마 모스큐브 만들기' 등 8개 프로그램을, 양산도서관은 '북구문화센터 연계 강연 문선희 작가와의 만남', '책갈피 만들기'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용도서관에서는 '조숙경 교수 강연(노벨상도 작은 만남에서 시작됐다)', '힐링 오일파스텔 드로잉' 등 7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프로그램 참여 방법은 북구통합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도서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섭 기자

공정과 상식